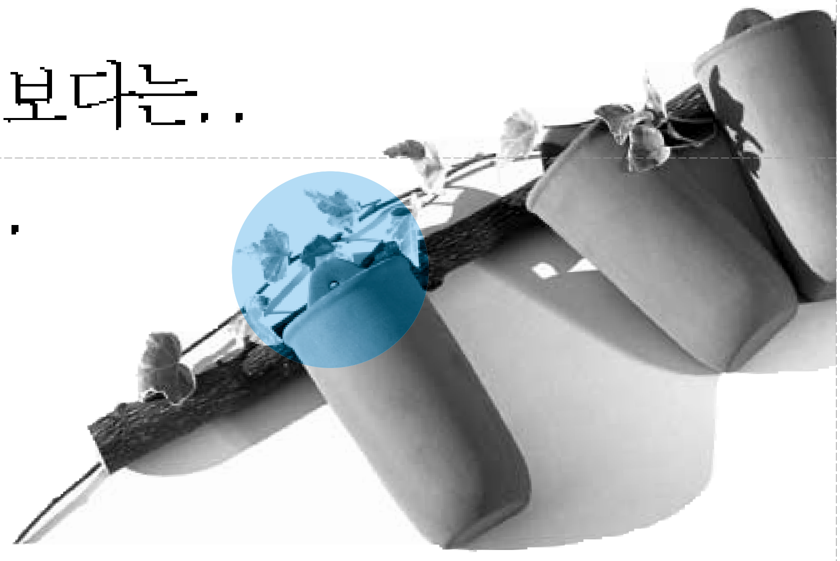
글 _ 이민호 (KBMI 윤리경영연구센터 소장)

지도층... 개혁성.. 보다는.. ..도덕성이.. 기본..



최근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정부관리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비등했다. 사임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과 '다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개혁성을 지녔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정부측이 공방전을 펼쳤다. 결국 본인이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번 인사사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덕성 결여되면 개혁 불가능

조직이론가 Espejo R.은 조직의 생존가능성(Viability) 측정요소로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정당성(Legitimacy) 3가지 요소를 들었다. 효율성은 혁신경영에 의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효과성은 전략경영에 의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조직이 아무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여 강한 경쟁력을 지녀도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정당성은 조직이 지니는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해 형성되며 리더의 도덕성 결여는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개혁성과 경쟁력 이전에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 위반하면 리더 될 수 없어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능부정사건이 터진 것이 불과 수개월 전이다. 이 사건은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목표달성을 빙자하여 범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영악함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지하지 못한 교육행정당국의 무능력도 한몫했다. 또한 '어린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교사의 직무유기가 빚은 합작품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교육계에 걸친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드러냈다. 한편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적신호를 보내주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하버드대에 두 번 응시하였으나 모두 낙방하였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만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가 학교에 확인한 결과 학교장이 쓴 추천서가 문제였다.

추천서에는 '이 학생은 우리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최고로 우수하다. 그러나 청바지를 입고 등교하면 안 된다는 교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버드대는 아무리 학업성적이 좋아도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뽑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규칙(Rule)'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사회를 이끌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벤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자정 펼쳐야

미국에서는 대학응시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장에 의해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인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국가차원의 인사시스템이 운영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벤처 패자부활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과거 벤처를 둘러싼 많은 실패담이 우려를 낳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 기업인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벤처 스스로 얼마나 자정노력을 펼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린 듯하다. 벤처가 장차 우리 경제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 KBMI윤리경영연구센터(www.kbmi.or.kr) 02-557-1747〉